목포 원도심 도시가스 공사 차질

사업비 100억에 고작 2억 확보… 착공 조차 못해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목포시는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지원 및 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263개 구역, 5천939세대의 신청을 받았다.

시는 지난달 동명동 남초등학교 일대를 비롯해 삼학동 동아빌라, 만호동 항동시장, 원산동 거성스위트빌라 등 4개 구간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시민들의 신청이 잇따르자 유달동 광장빌라와 용당 1동 한일시장, 용해동 목포MBC 인근 등 3곳을 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 목포시가 확보한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해 도시가스 설치 사업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는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한 추가 공사비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적어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될 전망이다.

원도심 지역 5천여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대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원도심 주민들은 상당 기간 값싸고 위생적인 도시가스 대신 기름이나 연탄 난방에 의존하게 됐다.

원도심 주민 김모씨는 "예산 확보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신청을 받아 기대만 부풀게 만들었다"며 "동별로 공사 우선 순위를 결정해 순차적으로 접수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대가 희망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김현 문학축전 목포서 열린다

다음달 1~6일

목포가 낳은 천재 문학평론가 김현을 조명하는 '제1회 김현 문학축전'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목포문학관에서 열린다.

'김현 문학축전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천승세)와 민족문학작가회의 목포지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문학 유적지 답사, 문학강연, 시·노래 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

또 김현 문학 아카이브 사진 전시회도 열리는 등 다양한 재조명 사업이 펼쳐진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축전이 '김현 문학관' 건립을 촉진하고 문학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김현 문학의 의미와 미학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전국 장애학생 기능경진 목포 소림학교 종합우승

금상 3·동상 1개 획득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기관인 목포 소림학교(교장 신영갑)가 천안에서 열린 2007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에서 금상 3, 동상 1개를 획득해 전국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청각장애분과 전남대표로 참가한 하나(고3·화훼장식 금상), 위헌철(고2·목공예 금상), 이보미(고2·제과 제빵·케익데코 금상)·강연희(중3·제과·제빵동상)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소림학교는 올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방과후 학교 운영비 6천400만원을 지원받아 제과 제빵, 화훼장식, 도예부 등 10개 부서를 운영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1980년 개교한 소림학교(유치부 부터 고3)는 지난 2월 유치부 20회, 초등부 22회, 중학부 19회, 고등부 16회 등 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1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안군 지도읍에 '녹색체험마을'

흑두부 만들기·갯벌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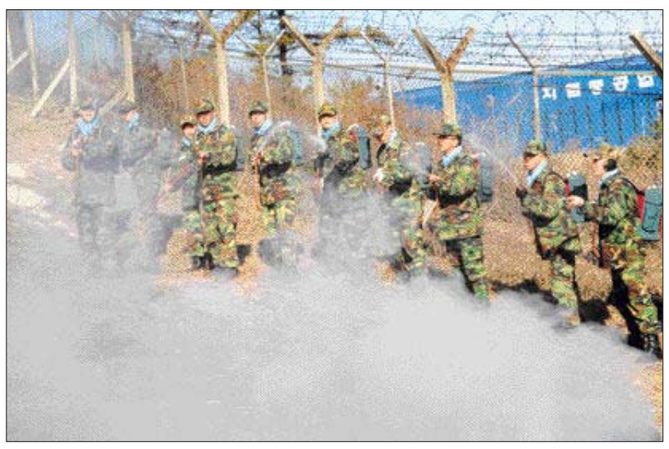
지난 27일 개관한 녹색 체험마을에는 5억2천여만 원이 투입돼 농촌체험관 2동을 비롯해 방문자 숙소, 교육장 등이 조성됐다.

내양리 체험마을(대표 김용현)은 전체 주민 46가구가 참여해 신비의 바닷길과 유채꽃 단지, 메주·흑두부 만들기, 연날리기, 전통고기잡이, 갯벌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내양마을은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마늘 장어와 토종닭, 흑염소 등 안전하고 특색있는 먹을거리로 유명하며 쌀, 마늘, 양파, 고추 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에게는 휴양·휴식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민·관·군 합동 산불진압훈련

해군 3함대사령부는 지난 28일 무안 소아산 일대에서 민·관·군 합동 산불진압훈련을 벌였다. 130여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서는 탄약고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가상 화재를 군 화학대와 영암소방서, 삼호읍 의용 소방대가 긴급 진압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능력을 점검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조달 업무 협약 체결

목포시-광주지방조달청

목포시가 28일 광주지방조달청과 물자, 용역, 시설 공사 등 조달 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달 업무 협력 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조달청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자료, 정보, 상담 및 교육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 조달 수수료 10%가 할인되며 '신속 전담 서비스(Fast Track Service)'도 제공돼 보다 신속한 조달업무 처리가 가능케 됐다.

목포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전자계약제 시행은 물론 계약 업무 혁신으로 청렴도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 해경, 중대형 경비함정에 전자海圖

중·대형 경비함정에서 종이해도가 사라진다.

목포 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지난 2002년부터 종이해도 교체작업에 착수해 현재 250t급 이상 중·대형 보유함정의 88%에 전자해도(ECDIS)를 설치했다.

전자해도 시스템(ECDIS)은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다른 선박의 움직임이 모니터 상에 자동으로 표시되며 저장 및 출력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전자해도 도입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외국 어선과 불법 운항하는 국내 선박 검거 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어 과학 수사와 효율적인 해상 경비가 기대된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목포에 사회복무센터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손종해)이 다음달 3일 목포시 석현동에 '사회복무관리센터'를 개소한다.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이들 인력이 장애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된다.

이에따라 '목포 사회복무관리센터'에는 '사회복무감독관'이 배치돼 사회봉사요원에 대한 복무감독이 강화된다. 한편 내년부터 광주·전남 지역에는 1천600여명의 사회봉사요원이 배치된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 새얼굴

"교정사고 예방 만전 기할 터"

장 영 석 목포교도소장

"교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임 장영석(55) 목포교도소장은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 정착 기반 조성에 힘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 출신인 장 소장은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청송직업훈련교도소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경숙(46)씨와 1남1녀, 취미는 검도와 테니스. /목포=이상휴기자 lsh@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21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함 평	324-8111		